

경남연합일보

2018/06/22 금요일
014면 문화

김해, 독서대전 사전 홍보 진행

김해시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김해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 문화 축제인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사전 홍보 프로그램으로 '교과서 밖에서 만나는 동시 작가'를 연다.

교과서에서 볼 수 있었던 동시를 지은 시인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7월 3일, 10일, 17일 총 3회에 걸쳐 운영한다.

먼저 7월 3일 김해기적의도서관에서 첫 만남을 가지는 이봉직 시인은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얼굴무늬 수막새'를 보고 '웃는 기와'라는 동시를 지었다.

10일에는 '수박씨'를 지은 최명란 시인이 장유도서관을 찾는다. 초등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재미있는 발상, 즐거운 동시 쓰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꾸민다.

'글자동물원'으로 알려진 이안 시인도 17일 화정글샘도서관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가진다. 시와 동시, 평론을 함께 쓰고 있는 이안 시인은 1999년 등단했으며, 격월간 동시 전문지 '동시마중'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자세한 문의 및 접수는 김해시 인재육성지원과(330-6686)로 하면 된다. /강종복기자